

제10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제 목	2018학년도 10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일시	2018.02.13.(월) 15:00-16:30
		장소	K동 206호
안 건	1.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안) 논의		
주요내용	<p>- 위원장 : 10차 등심위 개회를 선언 함.</p> <p>1. 전체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본예산 합의 후에 5월, 9월, 11월이나 12월에 추가 개최하는 것에 동의함.</p> <p>2. 외부위원 선정에 있어서 사전에 학생 대표들과 논의한다는 내용은 회의록에 남긴다고 함.</p> <p>3. 2018학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을 2017학년 수준으로 확보하기로 함.</p> <p>4. 건물리모델링, 디자인밸리 조성, 지하캠퍼스 설치, LA캠퍼스 추진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이에 따른 건축기금의 사용 및 공간 배정 등에 관하여 학생대표들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건물의 신축, 토지매입 등은 전액 건축기금을 사용하기로 함.</p> <p>5. 2018학년도 1학기 3월 중에 학생대표들을 대상으로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및 건축기금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함.</p> <p>6. 각 건물별로 분산배치 되어있는 각 단과대별 강의실과 실습실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논의를 학교 학생협의회 혹은 기획발전위에서 진행하기로 함.</p> <p>7. 2018학년도 등록금 중 신입생 입학금은 16% 감축하기로 함.</p> <p>8. 차등 등록금을 납부한 건축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캠퍼스 자율전공의 교육 여건 개선을 시행함.</p> <p>9. 학생들이 요청할 경우, 실험실습비 사용내역을 학과 사무실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실험실습비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가 검토하겠다고 함.</p> <p>10. 전임교원 확보율 75%, 교육비 환원율 140% 달성하기로 함.</p>		

11. 총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등심위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학교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함.

12. 지역사회 기여지표를 위해 거리미술전 등의 지역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13.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확대를 기획발전위원회에서 논의 함.

14.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각 단과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보고 학장, 학과장, 학생들이 발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함.

15. 공간 배정 및 공사에 관해 학생의견을 대부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함.(F, I, J, P동 포함)

16. 공개강의제도는 이미 시용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강의평가를 통해서 정식 임용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함.

17. 전자출결시스템을 확대운영은 확대범위나 구체적인 사항은 교학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시행하기로 함.

18. 사이버강의의 재생, 출결 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교학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19. 교직원 추가 채용 문제는 교학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20. 강의계획서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을 실시하기로 함.

21. 소수학과에 대한 전공 선택 과목 증설에 대해서는 소수학과 보장방안 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교학협의회에서 의논하자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소수학과에서 전공과목이 증설을 주장한 이유는 소수학과 일수록 전공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라고 함. 대형학과의 소수학과의 전공 개설 학점을 비교해보았을 때, 대형학과의 경우 150학점 정도 까지도 개설할 수 있지만 수학과의 경우는 110~120학점 정도 밖에 개설하지 못한다고 함. 이는 인원이 적어서 각 과목의 폐강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함. 이는 학과에게는 폐강에 대한 우려로 강의 개설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를 만들며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수업을 들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함.

- **위원장** : 1.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과목은 재수강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대 등 여러 단과대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교학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함. 학점포기가 아닌 다른 대체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함.

2. Adobe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약 2천명이 사용을 하고 약 9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함. 적절한 수준의 대안에 대해서 더 논의하자고 함.

3. 학교 건물에 전광게시판 설치하는 것에 합의함. 어느 건물에 몇 개의 전광게시판을 설치 할 것인지는 논의하자고 함.

4. 홍익대 어플리케이션 개선을 통한 입출입 카드키 시스템 추가, 야작계, 학생회 편의 기능 추가 등을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5. 휴게실 운영 경비를 예년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에 합의함.

- **학생처장** : 제3기숙사에 pc실, 열람실, 헬스장 등의 후생편의시설은 설치가 분명 될 것이며, 기숙사비 책정에 있어서도 주변 원룸 시세와 타학교의 사례들을 비교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타학교 사례와 주변 원룸 시세만 봐도 기숙사비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함. 이는 타학교 자료를 비교해보았을 때, 전국 1위로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함.

- **위원장** : 기숙사비 책정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하자고 함.

- **(세종)총학생회장** : 세종 기숙사는 4인실에서 2인실로 조정했을 때 기숙사비 인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계방학까지 논의하자고 함.

- **학생처장** : 제 3기숙사 실사를 해보자고 제안도 했었고, 1인실도 평수가 다르고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함. 식당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조리시설이 갖춰진 공간의 선호도가 높다고 함.

- **(세종)총학생회장** : 하계방학 중에 2학기 기숙사비 책정에 대해서 학생위원들과 함께 논의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서울캠퍼스 역시 교학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함.
- 기획관리처장 : 동의한다고 함.
- 위원장 : 대동제 문화제 경비를 2017년과 같이 확충 운영하기로 함. P동 흡연부스를 교체하고, E동과 제2기숙사 부근에 흡연부스 설치하기로 함.
- 학생처장 : 공로장학금에 대한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중수혜 부분이라고 함. 학칙이나 장학금 수여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면 장학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검토를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함.
- (세종)총학생회장 : 장학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함.
- 학생처장 :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고려해보겠다고 함.
- 위원장 : 장학위원회에서 학생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하기로 함.
- 학생처장 : 등심위 안건으로 상정하기 보다는 교학협의회에서 협의하자고 함. 학생처와 논의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함. 본인 또한 이중수혜 금지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함.
- (세종)과학기술대학장 : 장학금 지급폭을 증대할 것을 요청함.
- 위원장 : 장학금 지급폭에 대해서 장학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 학생처장 : 동아리 부회장 장학금 정원 배정은 부정적인 의견이 전반적이라고 함. 봉사시간 부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함.
- 위원장 : 장학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이중수혜로 인해서 지급되지 않는 장학금도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함.
- 위원장 : 1. 장학금 액수가 정해진 것만큼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부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함.
2. 국제교류를 위한 방문학생에 대한 제반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3.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프린트 쿼터제 개선에 대해서는 교학협의회에서 진행하기로 함.

4. 안전문제에 대해 문구 수정을 통해 합의문에 적시할 사항을 추후에 합의하자고 함.

5. 학생위원들이 요구하는 실질적 24시간 개방의 문제는 실무위원회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함.

- **학생처장** : 경사로 설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 **위원장** : 통행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표현에 대해 수정을 하고 합의문에 넣기로 함.

- **위원장** : 기숙사 입출입 스마트 시스템 도입은 검토할 수 있지만, 통금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함.

- **학생처장** : 2기숙사 화재 경보 오작동에 대해 소방청에서 점검을 한 결과, 화재 경보가 작동이 되고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바람의 압력이 강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함.

통금을 완화하게 되면 층장이나, 사생대표, 조교 등이 야간에 밤을 새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 노동의 강도도 높아지게 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함.

- **위원장** : 논의가 계속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 교학협의회나 실무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함.

- **위원장** : 교원 강의 평가 항목에 인권침해 부분을 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함. 신문고 제도와 성평등센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교수라는 직위 때문에 밝히기 꺼려지는 부분이 크다고 함. 또한 신문고 제도는 사실 사이트에 로그인한 상태로 글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고 현재 사용이 전무하다고 함. 또한 이미 타대학은 강의 평가에 인권침해 부분이 포함되어있는 대학들도 있다고 함.

- **위원장** : 1.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익명의 평가라는 것이 사실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역기능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함. 타 대학도 시행 중인 곳이 있다고 하니, 검토는 계속 해나가겠지만, 이번 등심 위 합의문에는 넣을 수 없다고 함.

2. 공통교양 과목 중에서 6개의 분류 중에 법과 사회가 있는데 그 안에 인권법을 추가하는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함. 이와 관련해서 법과대학 교수나 외부에 인권법 관련 교수를 초청하여 강의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함.

- **위원장** : 1. 공과대학 내 전공분반 증설문제는 교학협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함.

2. K동 1층 공과대학 휴게실 설치에 대해서는 교학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함.

3. 냉난방시스템을 웹리모컨으로 개별통제 전환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함.

4. 캠퍼스자율전공 관련 개선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함.

5. 중어중문학과 개설의 문제는 교학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하자고 함.

6. C동 416호가 대학원에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과대학으로 소속을 옮기기 위해서는 대학원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함. 문과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긴 하지만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문과대학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도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함. e-book을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자고 함.

7. 문과대학 소수학과 최소 입학 정원을 30명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함.

8. 미술대학 공간문제, 전임교원확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함.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함.

9. 사범대학이 제시한 안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금액문제는 논의

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함.

- **학생처장** : 거리미술전에 대한 공로장학금 배치는 거리미술전에 성격과 맞지 않다고 보고 거리미술전에 대한 예산 책정을 할 때 기획료를 감안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함.

- **학생처장** : HongIk Art Fair(HIAF) 에 대해서는 미술대학장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함.

- **학생처장** : 신기숙사 지하공간을 공연분과 연습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총학생회장과 함께 논의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함. 전부 이전을 하게 되면 악기 등의 보관 장소 문제가 생긴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보관실은 이미 확정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다고 함.

- **위원장** :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함.

- **학생처장** : 학생회관 3층을 동아리 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함.

- **위원장** : 동아리방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교학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이전 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함.

- **관재팀장** : 건설관리팀에서 제2기숙사 동아리방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끝이 나면 곧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함. 1학기 중에 진행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1학기 중에 교학협의회가 3월,4월,6월에 각1회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 타협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함.

- **관재팀장** : 공사는 업체 선정만 이루어지면 바로 시행을 할 것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 였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답변들도 있긴 했지만 학교의 권위를 흔드는 부분과 금액적인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함. 감가상각비,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58억, 차등등록금을 부담하는 단과대 실험실습비

증액 등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면 등록금 인하요청 함. 오늘 학생대표들이 모인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함. 현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실무부서와 만나서 조율하다보면 공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함. 적립금 이자가 115억이 나오는 상황에서 58억을 교비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립금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 쓰지 않고 적립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하다고 함. 현재 우리대학교 재정운영방식은 법인과 학교가 부담하는 것을 최소화 하면서 교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여 적립금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함. 우리학교가 '자주', '창조', '협동'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진정으로 의문이 든다고 함.

- **(세종)총학생회장** : 공연 동아리에 지급되는 교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함. 각 동아리에 지급되는 교비가 동일한데, 공연동아리는 다른 동아리에 비해서 금액적인 요소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함.

- **위원장** : 다른 동아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확답을 주긴 어렵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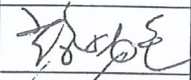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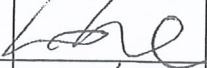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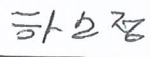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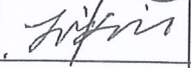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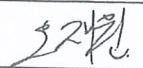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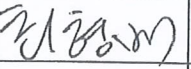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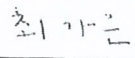
- **(세종)총학생회장** : 서울 총동아리연합회와 세종 총동아리연합회가 모두 합의한 사항이라고 함.

- **학생처장** : 예상치 못한 요청이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검토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추후에 진행이 되었을 때 다른 동아리에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함.

- **(세종)총학생회장** : 공기청정기 단계적 도입에 대해서 열람실이나 대형 강의실 등에 먼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함.

- **관재팀장** : 실사를 통해서 교육환경개선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함.

- **위원장** : 제 11차 등심위는 2018.02.19.(월) 3시 세종캠퍼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함.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위원	위원장	황 병 돈		위 원	신 민 준	
	위 원	고 경 호		위 원	하 소 정	
	위 원	김 중 인		위 원	오 재 원	
	위 원	최 형 배		위 원	최 가 은	
	위 원	심 재 익				
참석현황	참석대상	9명	참석	8명	불참	1명
작성자	재무팀 간사 이승용		작성년월일		2018.02.19	